

닭고기조금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OT
ISSUE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대응(4)

닭고기 소비 다소 회복세, 병아리 생산잠재력 여전히 높아

매몰처분수 700만수 넘어서

고병원성 AI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가금 종자의 보고인 축산과학원마저 AI에 감염되면서 가금업계가 큰 충격에 쌓여있다. 또한 농가를 드나드는 방역사들이 오히려 AI를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현장 방역사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삼진아웃제 등을 통해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방역정책이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지난 1월 17일 전북 고창 종오리농장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육용오리, 토종닭, 육계는 물론 산란계까지 확산되면서 살처분 수수가 720만수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1,020만수를 매몰했던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숫자이며, 지금과 같은 발생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의 닭과 오리들이 매몰처분되는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3월 7일 현재 32건이 AI로 신고되어 26건이 양성으로 확진되었고 지속적으로 AI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국면에 빠지게 되었다. 지난 2003년부터 AI가 5차례 발생되면서 짧게는 42일, 길게는 139일까지 지속된 바 있어 아직 AI중

식을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매몰처분 농가 생계 막막

AI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동제한, 출하지연, 입식지연 등 농가들은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차단방역, 매몰처분, 계분처리, 사료 및 출하차량 관리 등 다방면으로 발생에서 사후처리까지 신경을 쓰고 있지만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농가의 불만들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육계농가들은 살처분 보상비는 물론, 생계안정자금에 대한 형평성 없는 행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살처분 보상비는 현 시가로 계산을 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지급되던 생계안정자금도 4만수 이상은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있다.

충북 음성에서 42,000수의 육계를 사육하는 A씨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현 시가로 계산하다 보니 살처분 당시 kg당 1,400원으로 생산원가(1,800원)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오히려 3천여 만원의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더욱이 농가에게 돌아가는 생계안정자금의 경우도 받을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현재 전업농가의 일반적인 평균수수는 산란계 7만수, 육계 8만수, 종계 3만수이기

때문에 생계안정자금 지원기준을 없애든지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현재 수익 재발생기간이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현실과 거리가 있는게 사실이다. 재입식 기간만 최저 50일이 걸려, 육계에 있어서 수익 발생기간은 최소 5개월로 적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생계안정자금 지급 기준이 전면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 이번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규정을 신설해 지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대한양계협회를 중심으로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가에게 가장 민감한 살처분 보상금 기준도 현행처럼 시가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발생전 최소 몇 개월간의 평균시세로 하든지 아니면 원가로 보상해 준다면 지금과 같은 불만은 사라질 것이다. AI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데 현시세로 하면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I발생에도 불구하고 병아리 생산잠재력 높아

AI가 발생되면서 낮게 형성되던 육계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는 상황에서 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2월 하반기부터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가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함께 지속적으로 할인행사를 한 결과 다소 소비가 늘어났으나 아직도 발생 전에 비해 30% 정도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냉동창고에는 비축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AI로 인해 전국적으로 입식열기가 고조되면서 현재 병아리 가격은 720원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다. 지난달 원종계 15,893수가 매몰처분되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병아리의 수급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사육수수가 과잉되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에 살처분된 종계는 15만수 정도 매몰처분 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기존 추정치보다 하락하겠으나 금년 종계수수가 원천적으로 증가한 관계로 생산잠재력은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 AI발생 이후 소비가 살아나 장기적 호황을 기대하는 것은 선부른 관측이며 신중한 입식 등 장기적인 계획 하에 농장을 운영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기라 볼 수 있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장 김동진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조금관리위원회)



한국가금학회
손시환 회장

한국가금학회 손시환 회장은 198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입학 당시 모든 양계인들이 존경하는 오봉국 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시며 가금유전육종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손시환 회장은 닭을 연구하는 학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이 어언 30여년이 되었으며, 박사 학위 취득 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박사 후 과정을 연수하고 귀국한 후에는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현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에서 일하면서 닭과의 평생의 인연을 맺었다고 밝혔다. 손시환 회장은 1992년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고 지금까지 가금학과 유전학을 가르치며 후진 양성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주 연구 분야는 기초 유전 분야로 국내 최초로 닭 염색체에 대한 연구를 개시하였다.

최근 손시환 회장이 전념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국산종계개발 사업인 골든시드프로젝트(GSP)이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종자 수출국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향후 9년간 국가가 주관하는 종자 사업으로 가축 분야에서는 닭과 돼지가 그 대상이다. 손시환 회장은 책임 기간 중 고유 국산 토종종계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마지막 소망이자 희망이라고 전했다.



▲ 진주산업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주)올품 공장을 견학한 손시환 회장



인터뷰

‘APPC 2014’ 통해 양계분야 첨단 기술을 소개하고 회원 간 국제교류의 장 마련할 것

한류스타를 활용한 닭고기 소비촉진 활동은 경쟁력강화를 위한 홍보의 좋은 예
책임 기간 중 고유 국산토종종계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소망이자 희망

■ 한국가금학회는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가금학회는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가금학회(韓國家禽學會, Korean Society of Poultry Science)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회로서, 가금 분야의 학술연구, 기술개발 및 정보교환을 통한 한국의 가금학 및 가금산업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1973년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가 창립되었고 이후 본 지부를 주축으로 1983년 12월에 한국가금학회 창립총회를 갖고 본 학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450여명으로 가금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 연구소, 관계, 관련 분야의 협회, 기업체, 농장 등에 소속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회 활동으로는 연 4회 학회지 발간과 산학협동 심포지움, 학술발표회 등 학술활동 및 산학교류를 통하여 학문 연구와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올해 10월 19~23일에 개최될 ‘APPC 2014’ 대회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10월은 아시아 태평양 세계가금학회(APPC)가 한국가금학회 주관으로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국내 가금산업 발전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2011년 대만에서 개최된 제 9회 학회에서 우리나라 유치에 확정되었습니다. 아태가금학회는 1981년 창립되었고 현재 21개 회원국, 2,200여명의 가금학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개최되는 아태가금학회에서는 ‘차세대를 위한 가금학과 산업’이란 주제로 학회 기간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금학자 뿐만 아니라 세계 저명 가금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육종, 영양, 질병, 가공, 생명공학, 산업 등 가금학 전 분야에 대한 학술 발표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교류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가금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특히 이번 국제 행사에서는 국내 양계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세계 양계산업의 현 주소와 새로운 첨단 기술을 소개하며 참여 회원들 간의 국제교류의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금 분야의 新학문을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 APPC 공식홈페이지 : <http://www.appc2014.org>〉

■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조기종식과 앞으로 AI 예방을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지난 1월 발병한 AI로 국내 양계업에 종사하시는 수많은 양계인의 애환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며, 닭, 칠면조, 야생조류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의 급격한 감소, 비늘 등 머리부위에 청색증을 나타내고 병원성에 따라 폐사율은 0~100%이며, 산란율도 40~50% 저하 또는 산란중지를 나타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자 및 출입차량과 계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열심히 하면서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지역 농장 관계자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중 FTA 등 수입산 닭고기에 대응한 닭고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무엇인지요?

현재 한국과 FTA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진행 중인 국가가 20여 국가이며, FTA 협정에 따른 국내 축산 분야의 예상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내 닭고기의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 1인당 연간 11.5kg정도 섭취하고 자급률은 77%정도이며 이에 따라 연간 13만 톤 정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출량은 연간 2만 톤 정도로 일부 동남아 지역에만 제한된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 닭고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생산성 향상, 유통의 효율화, 소비의 진작 및 수출확대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한류스타에 의한 중국의 닭고기 소비 증가는 소비 진작을 위한 홍보의 좋은 예로 생각됩니다.

또한 AI 청정국으로 지위를 얻지 못한다면 삼계탕을 포함한 열처리 가금육의 대외 수출 기반을 공고히 하여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무슬림 국가에 수출확대를 위한 Halal 인증센터의 국내 설립과 도계장 및 가공공장의 Halal 인증 획득 등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H O T
ISSUE

0 0 2

시대책특별위, 가금농가 돕기 위한 국회 닭·오리고기 소비촉진행사 진행

국회의원 및 가금관련단체장 한 목소리로 '안전한 닭고기' 소개 및 시식회



201. 줌으로써 축산농가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의 소비촉진을 이끌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춘진 민주당 AI대책특별위원장, 최규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전병헌 민주당

한국경제, 식품저널, 푸드투데이 등 20여 언론의 취재기자들이 모여 열린 취재쟁쟁을 펼쳤으며, 참석자들은 닭강정 세트(농협목우촌), 즉석삼계탕(하림), 토종닭찜 세트(성실축산), 우리맛닭 레토르트(소래영농조합법인) 등 닭고기제품들을 둘러보고 토종닭 약탕과 닭도라지찜, 토종닭 단호박찜 등 닭고기요리를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 걸린 닭이나 오리고기는 절대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이라고 강조한 후, "앞으로 AI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장은 "최근 방송이나 언론에서 AI와 관련된 혐오스러운 장면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방송사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건강식품인 닭고기를 많이 소비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은 "AI는 국내 인체 감염사례가 없는데도 '언론독감'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만 조성됐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닭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AI대책특별위원회와 농협중앙회, 가금관련단체들이 지난 2월 27일 (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AI 발생으로 인해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소비가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국회가 소비촉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원내대표, 남성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 (사)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 (사)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장, (사)한국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 한국식생활개발 연구회 안승춘 회장 등이 참석해 가금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닭·오리고기 소비촉진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행사장에는 데일리안, 아주경제신문,

김춘진 AI대책특별위원장은 "가금류 578만수가 살처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농가를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우리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으로 이번 기회에 AI를 영원히 추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AI

농축산부, AI에 따른 소비감소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 발표

일반농가 및 계열화사업자 대상으로 1~3%,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는 AI 발생 이후 소비 감소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축산부는 AI 의심신고에 따른 살처분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AI에 따른 이동제한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경영안정자금은 AI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을 제한(이동제한)받은 농가

나 업체 등에 대해 연리 1~3%, 2년거치 3년상환을 지원조건으로 영업 중단 기간 동안 경영비를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농축산부는 AI 발생 이후 닭·오리고기의 소비 부진으로 인해 판매량이 급감함에 따라 이동제한에 관계없이 육계농가와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 대상은 일반농가(비계열, 입식제한) 및

계열화사업자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1~3%, 2년거치 3년상환으로 2년 동안은 1%의 연리를 적용하고 이후 3년에는 3%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내용은 원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제반 운영자금이다.

농축산부는 일반농가(비계열, 입식제한) 농가에 대한 지원한도액이 3천만 원이며, 산출방법은 '사육규모×1,500원/마리'이라고 밝혔다. 지원방법은 시장이나 군수에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비계열 농가

의 경우 (사)대한양계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입식제한농가는 시장이나 군수가 전년도 출하 실적 및 입식계획, 휴지기(육계 25일, 토종닭 60일) 경과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계열화사업자의 지원한도액은 30억 원이며, (사)한국계육협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된다.

농축산부는 앞으로 농가별 및 계열화사업자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관계부서(농업금융정책과, 시·도, 대출취급기관(농협),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농경연, 공급량 증가와 수요 감소로 3월 육계산지가격 1,500~1,700원/kg 전망

도계마릿수와 비축물량 증가로 공급량이 증가한 반면, HPAI로 인해 수요는 감소

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닭고기 총 공급량 증가와 HPAI 발생으로 인한 닭고기 수요 감소로 3월 육계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한 1,500~1,700 원/kg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경연은 3월 도계 마릿수가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7.0% 증가한 6,081만 마리로 전망했다. 3월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2.2% 감소한 8,929톤이라고 전했다. 냉동비축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월초 기준 810만 마리로 전망했다. 이처럼 도

계 마릿수와 비축물량 증가로 3월 닭고기 총 공급량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8,052만 마리로 전망했다.

반면 농경연은 HPAI 발생으로 인한 닭고기 수요 부진이 지속되어 3월 닭고기 수요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경연은 3월 닭고기 총 공급량이 증가한 반면, 수요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3월 육계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1,500~1,700원/kg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농경연은 올해에는 육계산지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열업체들이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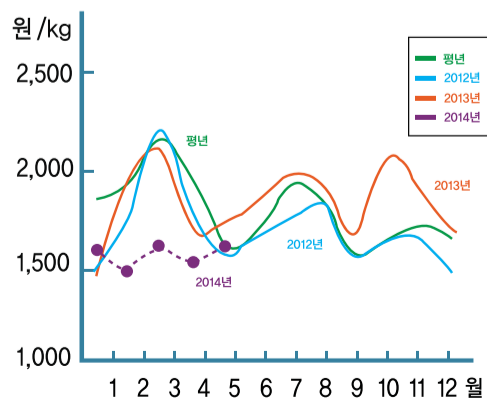
아리 입식의향 증가로 병아리 가격이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경연은 1월 육용종계 입식 마릿수가 전년 동월 대비 12.7% 감소한 27만 5천 마리였으며, AI발생으로 인한 종계매물처분으로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기존 추정치보다 하락하였으나 올해 종계사육 마릿수 증가로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1~13%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4~5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한 6,649만 마리(4월), 7,301만 마리(5월)로 전망했다.

이어서 농경연은 4~5월 도계 마릿수 증

가와 닭고기 수요의 감소로 4월 육계산지가격은 4~17% 하락한 1,400~1,600원/kg, 5월은 2~14% 하락한 1,500~1,700 원/kg으로 전망했다.

| 육계 산지가격 전망 |



자료 :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H O T
ISSUE

닭고기관련단체, GS수퍼마켓에서 닭고기 소비촉진 캠페인 진행

2월 21일 시식행사를 시작으로, 3월 6일까지 특별할인판매 실시



GS수퍼마켓 관악점에서 진행된 닭고기 소비촉진 캠페인 현장

닭고기관련단체가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소비촉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21일 닭고기관련단체들은 GS수퍼마켓 관악점 앞에서 닭·오리농

가를 돕기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닭고기조사금관리위원회 이홍재 위원장을 비롯해,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 체리부로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닭 튀김용 시식차량을 준비해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갓 튀겨낸 후라이드 치킨과

정성스럽게 포장된 친환경 달걀을 증정했다. 닭고기관련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닭고기 시식행사를 진행하며 닭고기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닭고기의 맛을 소개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시식행사장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찾았으며, 고객들에게는 닭고기관련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시중에 나온 닭고기 제품이 AI로부터 안전한 식품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닭고기관련단체와 GS수퍼마켓은 시식행사를 시작으로,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친환경 닭고기 및 토종닭, 부분육을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촉진을 이끌어 고병원성 AI로 고통받는 육계 농가들에게 큰 힘을 보태주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 판매하는 닭고기 제품들은 청정지역에서 정성들여 키운 닭으로 HACCP인증 공장에서 생산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며 "이번 닭고기 소비촉진 캠페인은 닭고기의 안전함을 알리고 할인판매를 통해 닭고기 소비촉진에 기여하고자 진행했다"고 전했다.

축산업 허가제 적용대상 전업규모 이상으로 확대실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의 대규모 농가에서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로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농축산부가 밝힌 농가 구분 기준은 닭의 경우 대규모 농가는 2,500㎡이며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는 1,400㎡이다. 이로 인해 가금농가의 경우, 전체 약 7,400호 중에서 이미 허가제 대상인 대규모 농가 약 1,500호 이외에도 약 1,000호가 신규로 허가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다음의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사

육·환기시설, 소독시설(차량·대인 소독시설, 차량소독·출입자 기록부, 신발 소독조), 방역시설(울타리나 담장, 출입금지 안내판) 등을 갖추어야 하며, ▲ 육계(무창계사)의 경우 단위면적당 39kg/㎡의 적정 사육마릿수를 준수해야 하고, ▲ 위치기준에 있어서 지방도 이상 도로 30m 이내, 도축장·사료공장 500m 이내 등에는 축산업 허가제한(지자체 조례로 제한거리를 1/2 범위에서 조정 가능)된다. 농축산부는 다만 기존 농가에 한해서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2월 23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전업규모 이상

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축산부는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발생 유발, 타 지역으로 확산, 또는 살처분 명령 위반 등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농축산부는 축산업 허가제 허가대상을 2015년 2월 23일까지 준전업규모의 농가, 2016년 2월 23일까지 소규모 농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축산부는 '2014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에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에 등록된 면적 범위 내에서 축사시설현대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업농 규모로 확대하려는 준전업농의 경우 전업농 기준면적(닭 3만 수, 토종닭 1만 5천 수 이상)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육계(토종닭 포함)의 경우 사육규모(면적환산)를 기준으로 준전업~전업농에 한해 보조+융자지원하며, 축사 면적당(㎡) 지원액은 36만원/㎡이며, 상한액 8억 5천만원이다. 농가 별로 축산업 허가제 적용대상인지 확인하고, 이와 연계하여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가능 여부도 체크하여 경영안정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AI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한 사료운반차량 운행방식 지정

닭, 오리 등 축종 구분없이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금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는 고병원성 AI의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해 가금류용 사료운반차량을 축종별로 구분하여 운행한다고 발표했다. 농축산부는 사료운송 시 1회에 한 농가만 배달하며, 1회 적재 후 두 농가 이상의 배달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농가 방문시마다 반드시 사료공장에서 SOP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배달하여야 하며, 1회 소독 후에는 여러 농가 방문도 금지한다고 전했다. 농축산부 지침에 따르면, 가금농가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료전용차량지정서 미소지 및 '전용차량 스티커' 미부착 사료운반차량의 농장 출입을 차단 ▲ 지정서 및 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시군 등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 지정서 소지 및 스티커 부착차량의 농장 출입 시 소독을 실시 ▲ 자가 트랙터·경운기 등 사료 운반수단을 마련하여 농장 또는 마을입구에서 축사까지 사료를 직접 운반》 사료 형태별 운반 범위는 닭과 오리농가 등 축종에 구분없이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구체적인 운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료 형태별 운반범위〉

| 벌크 형태 운반 범위 |

차량 \ 농가	닭 농가	오리 농가	소 농가	돼지 농가
닭 사료	○	×	×	○
오리 사료	×	○	×	○
소 사료	×	×	○	×
돼지 사료	△ (둘 중 한 축종만 가능)		×	○
닭 + 돼지 사료	○	×	×	○
오리 + 돼지 사료	×	○	×	○

| 지대 및 톤백 형태 운반 범위 |

차량 \ 농가	닭 농가	오리 농가	소 농가	돼지 농가
닭 사료	○	×	○	○
오리 사료	×	○	○	○
소 사료	○	○	○	○
돼지 사료	○	○	○	○

애그리비즈니스, '육계 사육경비 조사 및 경영성과 분석' 연구결과 발표

사육경비 현실화 및 상생구도 만들어야 함을 지적

현실적 사육경비 파악에 주력

애그리비즈니스 경영연구소(대표 김정주)는 닭고기자조금사업으로 진행된 '육계 사육경비 조사 및 경영성과 분석'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우선 국내 농업통계를 내고 있는 통계청의 자료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통계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07~2008년 통계 작성 과정에서 지방통계사무소가 방문조사는 고사하고 전화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에 애그리비즈니스 경영연구소는 이번 연구에서 지역별, 계열사별로 천차만별인 농가의 사육 경비 현황을 조사하여 현실적인 육계 계약 농가의 사육경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소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육계 계열화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육계사육농가 연평균 소득 2,544만원

지난 2012년 9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전국 150개 농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농가의 농장소유형태는 자가소유 농장이 85.0%, 임대농장이 12.5%, 토지는 임대이지만 축사는 자가소유인 농장은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업체와의 평균 계약기간은 3.3년이고 사육성적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방식인 경우는 73.9%, 상대평가는 26.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농가의 평균 부채는 4억 6,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축비와 사료비를 제외한 육계 계열경영 육계사육 경비는 육계생체 kg 당 510.53원(통계청자료 : 312.0원)인 것으로 조

사되었고 이중 74.85%는 농가가, 나머지 25.5%는 계열화사업자가 보조한 경비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소에 따르면 통계청자료에는 생산비 측면이 과소평가되었고 농가수익 창출면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연구보고에는 연간 5.6회전을 가정할 경우 국내 육계 계열사육농가는 연간 2,544만원의 농업소득을 창출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 2012년 통계청이 발표한 축산농가 연평균 농업소득 3,31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자가노동비와 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등 암묵비용을 포함한 변형된 생산비로 계산하면 회장당 499만 원의 순수익을 감내하고 있는 셈으로, 5.6회전을 적용하면 연간 2,798만원의 순수익을 감내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상생의 구도를 착실히 만들어 갈 때

연구보고서는 지난 30여 년간 사료요구율이 2.0kg에서 1.6kg까지 떨어졌고 사육일수 또한 40일에서 30일까지 단축되었으며 육계축사 형태도 반영구적인 무창·유창 비율이 70%를 넘을 정도로, 육계산업은 생산성 측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약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생산성 향상으로 창출된 경제가치를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육계농가는 육계 계열화사업이 90%이상 진행된 현 시점에서 계열화사업자가 없으면 살기 힘든 상황이고 계열화사업자도 농가 없이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서로가 상생의 구도를 착실히 만들어 나갈 때임을 밝혔다.



육계질병가이드 / ND, IB, IBD 백신의 사용법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IB발생을 염려하는 농가들에서 IB백신 상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Q. 환절기에 IB발생이 문제가 될 것이 염려되어 IB 백신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기존에 IB백신을 사용하지 않았던 농장입니다)

A. 현재 육계농가에서 사용되는 백신은 ND(뉴캐슬병), IB(전염성 기관지염), IBD(감보로병 혹은 전염성 F낭염), 이 세가지 질병에 대한 생백신입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대개 ND생백신은 1일령, 14일령으로 고정되어 있는 편이고, IBD생백신 역시 감보로병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농가의 경우에는 주로 14일령에 ND생백신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해 주신 농가 역시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IB생백신 접종일령만 잡아드리면 되는 경우였는데, 일반적으로 7~9일령 사이에 접종을 권장드립니다. IB가 발생하는 일령은 모체이행항체, 야외바이러스, 지역상황에 따라 편차를 보이지만 대개 2주령 후반부에서 3주령에 발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백신에 의한 방어효과는 보통 3~5일령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하므로, IB

단일생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10일령 이전에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IB생백신과 ND생백신은 모두, 접종 후 호흡기와 장에서 증식하므로 서로 간섭현상이 생깁니다. 즉, IB면역이 잘되면 ND면역이 약해지거나, 거꾸로 ND면역이 잘되면 IB면역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끔 농가에서 편리성을 이유로, ND단일생백신, IB단일생백신, IBD단일생백신을 혼합해서 같은 일령에 접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ND면역이 약해질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같이 접종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IB, ND합제 생백신을 사용해서서 간섭현상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농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필드 수의사와 상의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powerseeker@hanmail.net로 문의해 주세요.

(제공 : 고려비엔피 정윤석)

(주)마니커, 닭가슴살 분말제품 '순수한 닭가슴살' 1회용 스틱포장으로 출시



▲ 스틱형 '순수한 닭가슴살'

(주)마니커(대표이사 신계돈)의 특허출원 제품 '순수한 닭가슴살'이 스틱형 포장으로 나왔다.

닭고기 가공업체 마니커는 한 번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크기인 중량 7g의 스틱형 '순수한 닭가슴살'을 지난 2월 2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주)마니커는 지난해 12월 아무 것도 넣지 않은 신선한 상태의 닭가슴살을 동결 건조해서 분말로 만든 '순수한 닭가슴살'을 출시하여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번에 편의성을 극대화한 스틱형 '순수한 닭가슴살'로 닭가슴살 시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해 출

시한 원통형(110g) 제품이 집이나 사무실, 업소 등 실내에서 손쉽게 닭가슴살을 접하게 만든 것이라면, 이번에 출시된 스틱형 '순수한 닭가슴살'은 휴대성까지 강화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밝혔다.

(주)마니커 관계자는 "닭가슴살이 웰빙시대의 대표 육류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유통기한과 휴대 및 보관문제, 조리의 불편함, 딱딱한 식감 등으로 인해 시장확대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모든 단점을 해소한 스틱형 '순수한 닭가슴살' 출시를 계기로 명실공히 국민 건강식품의 지위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마니커는 스틱형 '순수한 닭가슴살'을 14개입 박스포장, 5개입 비닐포장 등 두 종류로 출시해서 마니커몰을 비롯한 인터넷쇼핑몰과 할인점, 홈쇼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처 : 홍보사업부 최용삼 부장 (031-8014-4140)>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개인 닭고기자조금 납입 현황(2014년 2월)

(단위 : 원)

대표자	농장명	납부금액	주소
장영자		69,000 (69,000)	
지구환		200,000 (200,000)	
이해만		60,000 (60,000)	
임병우	임씨양계장	120,000 (120,000)	경기 고양시 덕양구
김현섭		150,000 (150,000)	
김영학		150,000 (150,000)	
배광수	수월농장	84,150 (84,150)	경남 거제시
이정환	응봉농장	715,500 (715,500)	충남 예산군 응봉면
송철호	은진농장	270,000 (270,000)	충남 예산군 대술면
문종길	성우농장	146,250 (146,250)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장재흥		311,390 (311,390)	
황길주		480,000 (480,000)	
이달준	인촌농장	120,000 (12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임달수		150,000 (150,000)	경기 연천군 연천읍
임달주		150,000 (150,000)	
이기원		102,000 (102,000)	
박병욱		92,800 (92,800)	
이상열		140,000 (140,000)	
김종범	협촌농장	80,000 (80,000)	경북 상주시 사벌면
남상길	법곳농장	90,000 (90,000)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이순준	노티농장	80,000 (80,000)	충남 논산시 노성면
노철환	평화농장	150,000 (150,000)	전북 임실군 삼계면
김영세	영광농장	141,141 (141,141)	충남 천안시 동남구
여성우		128,000 (128,000)	강원 화천군 하남면

※ 2014년 2월 자조금 납부금액 총계는 4,180,231원이며, ()는 자조금 납부금액의 누계입니다.
※ 명단에 주소가 없는 분들은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02-585-9974)

(사)대한양계협회



본회, 고병원성 AI로 인한 총회 서면결의로 대체

제20대 회장선거 우편투표 시행

계속되는 고병원성 AI 발병소식으로 본회는 기존 3월 12일 개최예정이던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를 진행한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국가 재난상황을 발표하고 아울러 축산인들의 회의 및 모임을 자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양계농가들의 소집에 따른 방역 문제로 총회개최가 불가하게 된 것.

이에 총회 의결안건에 대해 서면결의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20대 회장선거

는 2011년 당시 회장선거방식이었던 우편투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20대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기호1번 이연중, 기호2번 김익수, 기호3번 오세를 후보로, 협회 대의원들은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 투표용 속봉투에 1차 봉인한 후 겹봉투에 담아 본회로 송부하면 된다.

오는 3월 20일 오후 5시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해 유효하며, 본회에서는 투표함을 당일 개표하여 당선자를 밝힐 예정이다.

공주육계지부 AI 방역초소 위문품 전달



공주 축산과 AI 방역초소에 위문품을 전달한 공주육계지부

인해 양계농가뿐 아니라 지역 공무원들도 막중한 방역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위로하고자 방문하였다. 윤금로 지부장은 공주시 축산과 배수명 계장과 함께 공주 관내 12개 초소를 직접 순회하며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 군인, 의무경찰관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고 준비해간 위문품에 공주시 지역 양계농가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직접 전달하였다.

지역별 닭고기소비촉진행사 진행



각 지자체 별로 닭고기 시식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닭고기자조금사업 중 올바른닭고기 정보전달 사업이 조기 승인됨에 따라 지난 2월 중 각 지역에서는 닭고기 소비촉진행사가 진행되었다. 가축방역 문제로 지역행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육계지부에서는 지자체 관내 닭고기 시식행사 및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당

(사)한국계육협회



닭고기 홍보대사 박은지 CF 영상 이마트 내 PDP TV 스크린에 송출

8일간 전국 이마트 63개 매장에서 일일기준 83회로 방영

(사)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현재 협회와 함께 기존의 가격보다 40% 할인

된 파격적인 가격으로 행사를 진행 중인 이마트 내 비치된 PDP TV 스크린에 국산 닭고기 홍보대사 박은지가 출연한 닭고기 캠페인 광고영상을 방영하는 홍보

를 진행했다.

이번 홍보는 어려움에 처한 국내 육계 농가 및 계열업체와 할인 행사를 실시하는 이마트 양측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 협회가 직접 요청하여 이뤄졌으며 소모되는 광고비용은 전액 무상(실제 집행비용 2천만원 선)으로 진행했다.

캠페인 광고 영상은 기존 국산 닭고기의 장점 소개뿐만 아니라 이마트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닭고기 할인 행사 정보까지 담고 있으며 지난 2월 19일(수)부터 할인 행사가 종료된 2월 26일(수)까지 전국 PDP TV를 보유한 63개 이마트 매장에서 영업시간 14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6회, 일 83회



방영되었다.

본 협회 정병학 회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마트를 찾은 쇼핑객들에게 품질 좋고 맛 좋은 국산 닭고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 및 올바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AI에 대한 국민 불안 및 불신 등의 오해를 해소하여 닭고기 소비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한국토종닭협회



토종닭 ‘한닭’을 이용한 고명환의 다이어트 요리교실 개최

지난 2월 20일(목) 이마트 성수점(본점)에서 토종닭협회 홍보대사(고명환-방송인)를 초청하여 ‘한닭’ 홍보를 위한 토종닭 다이어트 요리교실을 개최하였다. 이날 요리교실에서는 토종닭 ‘한닭’ 소개와 함께 현재 AI에 대한 안전함을 설명하였으며, 메뉴로는 ‘소스없는 샌드위치’와 ‘살 안찌는 감밥’을 선보였다.

강의 후 소통의 시간을 나눔으로써 토종닭 ‘한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참

석자들은 미니 레시피 북을 활용한 토종닭 ‘한닭’의 요리에 깊은 관심들을 표명하였다.

본 협회는 참석자들에게 다시 한 번 AI에 대해 닭고기의 안전함을 강조하였고 참석자는 그것을 인지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건강한 밥상에 딱 어울리는 우리 토종닭 ‘한닭’ 요리에 참석자들 모두 깊은 만족감을 표시하며 토종닭 특강의 지속적인 개최를 희망하였다.

(사)한국토종닭협회, 토종닭 소비촉진행사 실시



토종닭 농가들이 직접 판매에 나선 토종닭 소비촉진 행사

본 협회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소비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토종닭 사육 농가가 직접 나서서 토종닭 소비 촉진 행사를 실시하였다.

본 협회는 각 시군구에 공문을 보내어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소비둔화에 따른 어려움에 대한 타개책을 모색하고자 여러 가지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우리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 여러 가지 소비, 홍보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우리 토종닭 ‘한닭’ 안정성과 우수함을 홍보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별그대 타고 중국 시도 이겨낸 치맥 한류열풍



극 중 천송이는 치킨과 맥주, 일명 치맥을 좋아하는 캐릭터로 첫눈이 오거나 우울할 때면 치맥을 찾는다. 그런데 최근 한류열풍과 함께 한국 드라마가

치맥문화도 이젠 한류! 치킨소비량 증가시켜

(사)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최근 생겨난 치킨동아리(연세대학교 치킨동아리 피닉스)와 함께 많은 가수들이 참여한 치킨송(그룹 마블링-feat. 맹승지, 김상희와 그룹 장미여관 등)을 제작하는 등 ‘치맥문화’의 정착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본 협회는 치킨동아리와 그룹 마블링의 ‘렛츠꼬꼬요-치킨송’의 뮤직비디오를 지난 2월 23일(일)에 촬영했으며, 한류열풍의 대표문화로서 치맥문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치맥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치맥열풍이 이제는 한류바람을 타고 중국의 닭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최근 큰 인기리에 종영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 때문이다.

유명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확산되면서 중국 닭시장의 소비를 주도할 신호탄이 되고 있다.

AI로 인해 감소하던 치킨소비가 별그대 열풍과 함께 늘어나는 이 시기에 중화권 여배우 가오위안위안(고원원)과 판빙빙은 천송이 대사를 패러디해 “첫눈 오는 날에는 치킨에 맥주”라고 하면서 웨이보에 올리고, 메신저 ‘웨이신’에서도 이를 반영해 ‘치맥’을 입력하면 대화창에 눈이 내리는 등 치맥앞이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를 광저우의 한 위성TV를 비롯한 각종 TV매체에서 보도되고 있으며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언론매체에서도 중국의 ‘치맥열풍’에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본 협회는 AI도 극복해낸 중국 내의 치맥열풍을 통해 국내에서도 AI의 위기를 이겨내고 한국의 대표 문화로 ‘치맥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주관 AI 조기종식, 전통시장 일제 소독 나서



AI 조기종식을 위해 전통시장 추가 일제소독을 진행하는 모습

AI 조기종식을 위한 전국 전통시장 추가 일제 소독이 협회 주관 하에 산담유통분과위 전 지회를 중심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2일까지 일제히 전체소독을 실시하였다.

전국 전통시장은 토종닭을 비롯하여,

가금류 전체의 판매를 일제를 중단하고 모든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본 협회 산담유통분과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매월(1~2일, 15~16일) 2회 소독을 실시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본 협회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종사자의 방역교육, 전국 일제 소독실시 등 AI 조기종식을 위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Today's
**맛 있는
닭고기 요리**

닭다리와 레몬 바베큐

레몬의 비타민C는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어 체온이 내러가는 것을 막아주고 세균 저항력을 높여주어 감기예방에 좋다. 환절기에 감기예방에 좋은 레몬과 단백질이 풍부한 닭다리를 곁들인 음식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도 좋을 듯하다.

- 재료** 닭다리 4개, 레몬 1/2개, 양파즙 2큰 술, 생강즙 1큰 술, 소금, 후추, 밀가루, 식용유, 허브, 파슬리가루
- 바베큐 소스** 다진 양파 3큰 술, 다진 마늘 1큰 술, 다진 샐러리 1큰 술, 고운 고춧가루 1/2큰 술, 케첩 1/2컵, 레몬즙 4큰 술, 오렌지쥬스 1/2컵, 간장 1큰 술, 핫소스 1/2큰 술, 와인 2큰 술, 갈색물엿 2큰 술, 올리브기름 1큰 술, 소금, 후추



Cooking

1. 닭다리는 어슷하게 칼집을 넣어 소금, 후추, 양파즙, 생강즙에 재워 놓는다.
2. 양념한 닭다리에 밀가루를 묻혀 팬에 기름을 두르고 노릇하게 굽는다.
3. 팬에 올리브 기름을 넣고 다진 양파, 마늘, 샐러리를 넣어 볶은 후 불을 줄여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타지 않게 볶는다.
4. ③에 케첩, 레몬즙, 오렌지쥬스, 간장, 핫소스, 와인, 갈색물엿을 넣고 끓여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춰 바베큐 소스를 만든다.
5. 바베큐 소스에 구운 닭다리를 넣고 중불에서 닭이 완전히 익도록 구워 그릇에 담고 파슬리 가루를 뿌리고 레몬과 허브로 장식한다.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퀴즈 날말맞추기

1		13		12	
				11	10
2	3		9		
			8	7	
4		5			
		6			

◇ 가로풀이 ✨ ✨

- ②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이라는 뜻으로, 귀한 자손을 이르는 말
- ④ 산화칼슘, 물과 반응하면 100℃에 가까운 열을 내면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고 소독효과가 있는 수산화칼슘을 발생시킨다
- ⑥ 물건이나 상품을 진열해 두는 장소
- ⑧ 역사적 사실이나 신화, 전설, 영웅의 사적 따위를 서사적 형태로 쓴 시
- ⑩ 예전에 싸움을 할 때 적의 창검이나 화살을 막기 위하여 입던 옷
- ⑬ 어떤 물품을 만들어 내는 곳

◇ 세로풀이

- ① 농축산물 등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민피해를 줄이고자 산지가격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금액
- ③ 극장이나 항공기 등에서 정하여진 좌석
- ④ 전체에서 일부를 줄이거나 뺌
- ⑤ 의사가 환자의 병실로 돌아다니며 진찰함
- ⑦ 사단을 지휘 또는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
- ⑨ 규격을 한정하고 우편 요금을 냈다는 표시로 증표를 인쇄한 편지 용지
- ⑩ 차려입은 옷이 어울리는 모양새
- ⑫ 돈, 증명서 등을 넣을 수 있도록 가죽이나 헝겊으로 씌워처럼 만든 자그마한 물건
- ⑬ 살아서 겪는 지옥이라는 뜻

67호 정답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양계
비법전수**

육계의 점등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육계에서의 점등은 사료섭취량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특정 점등 프로그램은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각 지역의 환경, 계사형태와 전체적인 사육목적에 맞게 변형시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적절한 점등 프로그램은 닭의 일당 증체량을 떨어뜨려 전체적인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생산성, 사료 영양소 수준 및 섭취상태를 관찰하며 시행토

록 한다.

종양점등법은 입추에서 출하 때까지 계사 내부를 계속 불을 밝혀주는 점등법으로 국내 육계농장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폐사, 이상도체 발생, 복강지방 축적률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간헐점등법은 하루에 여러 번 밤낮을 반복시키는 점등법인데 명암주기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1시간을 밝게 3시간을 어

둑게 해주는 1L:3D방법이 대표적이다. 종양점등법의 대체기술로서 보급된 바 있으나 사용이 미미하다. 점증점등법은 초기에는 거의 자연일조 조건에서 사육하여 골격과 장기, 근육조직간의 균형발육을 꾀하다가 점차 점등시간을 늘려 보상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출하기에는 다른 점등방법과 동일한 체중을 얻는 방법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AI 차단방역 철저

AI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 소독 필수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하게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살충 및 구서(쥐잡기) 실시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A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